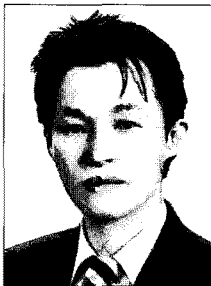


고사위기 낙농가를 상대로 원유가협상을 저울질 할 땐가



배 정 식
본회 지도부장

원유가 현실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재의 원유가격 결정구조는 낙농진흥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이를 유업체가 준용하는 방식이다. 지난 5월 18일 개최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는 생산자측 요구에 따라 원유가 현실화 방안 논의가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그러나 원유가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조차도 당장 시작하지는 생산자측과 미루자는 유업체측 공방으로 6월초 이사회에서 소위원회 구성을 한단는데 합의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현재 낙농가들이 구제역 파동까지 겹쳐 목장경영이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라는 것은 유가공업체도 다들 인지하고 있는 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유가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조차 시간 벌기를 하려는 속내는 뻔하다. 원유가격 인상을 최소화 하려는 전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원유가격 현실화를 위한 논란의 핵심은 바로 낙농가의 생산의욕 고취로 낙농기반 유지에 있다. 스트레스에 약한 젖소가 기후변화 문제로 인해 각종 번식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고, 사료값은 계속 오르고, 앞친 데 뒷친 격으로 구제역 백신으로 산유량이 급격히 감소추세다. 그런데 겉으론 낙농가의 생산을 독려한다며 초과원유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지급하는 조치를 취하면서도 원유가격

현실화 논의는 나 몰라라 한다면 이는 낙농유업의 상생의 길이 아니다. 결국은 상생을 말하면서 결국 분열로 가자는 얘기나 매한가지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소속 낙농가들을 상대로는 원유가 현실화에 적극 나서는 것처럼 하고선 막상 원유가 협상 논의 장에서는 우는 애기 사탕 주듯 하면서 뭉니를 부리는 행태를 이번에도 또 반복할 것인지 걱정스럽다. 진정으로 묻고 싶다. 한국낙농을 위해 원유가 현실화 없이 현 상태의 유지가 과연 최선인지 말이다.

유업체는 낙농가들의 고통 속에서도 우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엄청난 양의 값싼 무관세 분유와 유제품을 들여올 수 있는 큰 선물을 이미 받았다. 한·EU FTA 발효를 앞두고 또 막대한 양의 무관세 물량이 대기하고 있다. 마치 해외 원료기지를 확보하고 필요할 때마다 연중 들여올 수 있는 구조나 마찬가지다. 수입분유 대체로 얼마의 이익이 발생하는지는 차치하더라도 국내 낙농업 기반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값싼 수입분유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을 게다.

벌써 올 여름 무더위를 걱정하는 소리가 들린다. 또 얼마나 젖소 스트레스로 인한 유량감소와 농가피해가 발생할지, 구제역 백신영향은 또 어떨지. 이달에 사료값은 또 오르고 정말 폭풍전야다. 한시라도 빨리 원유가 현실화로 달아나는 낙농가를 붙잡아야 할 판에 고사위기 낙농가를 두고 원유가 협상을 저울질하는 것은 모양새도 그렇고 정도가 아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목장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원유가 현실화를 바랄 뿐이다. ☹

